

문화성향과 공감 및 고독의 수준*

조금호[†] · 김지용 · 홍미화 · 김지현

서강대학교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자기가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어 사적 자의식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집단중심성향자들은 내집단원이 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어 공적 자의식과 상호의존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자보다 후자가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 개의 관련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개인중심성향자에 비해 집단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이 높았는데(연구 1), 이러한 경향은 인지적 공감보다는 정서적 공감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졌다(연구 2). 또한 공감 수준은 고독 수준과 유의미한 역상관을 보여,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공감 수준은 높고, 고독 수준은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연구 3).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문화차 관련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두 문화에 특유한 문화적 명제에 부합하는 요소들에 대한 주의의 차이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다.

주제어 : 문화성향, 자의식, 공감(인지적 공감 · 정서적 공감), 의존성-자율성 신념, 고독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이나 타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을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 보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관계 또는 이러한 관계의 원형인 가족과 같은 일차 집단을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로 본다.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에 대한 두 문화권에서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두 문화에서의 인간 일반과 자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개인적 욕구와 선호를 추구하는 자기 분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유리적이고 개체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독립적 자기 또는 사적 자기의 개념이 우세하게 되므로써, 강한 개인적 정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사회 관계 및 그러한 관계 속의 역할이라고 보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상황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 또는 공적/집단적 자기의 개념이 우세하게 되므로써, 강한 사회적 정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조금호, 1993,

* 본 논문의 연구 1은 김지용(2002), 연구 2는 홍미화(2002), 연구 3은 김지현(2002)이 전기 필자의 지도로 서강대학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이다. 세 연구를 종합한 본 논문 작성은 전적으로 전기 필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곳에서는 결과 처리도 새로 하였다. 결과 처리 과정에서 이현남 박사와 한양대학교 대학원의 박동필 석사의 도움을 받았다. 고맙다. 또한 세 분의 초고 심사위원은 많은 귀중한 지적과 시사를 해 주었다. 가능한 한 이들의 지적을 수용하려 노력하였으나, 의견의 차이나 필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하여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 여하튼 이들의 지적은 본고가 초고보다 훨씬 짜임새 있는 것이 되도록 해 주었다. 역시 고맙다.

[†] 교신 저자 : 조금호(121-742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교양학부, ghcho@ccs.sogang.ac.kr)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조공호·김소연, 1998; 조공호·김은진, 2001; 조공호·명정완, 2001; Greenwald & Pratkanis, 1984; Kunda, 2000; Markus & Kitayama, 1991, 1994; Triandis, 1990, 1995; Weldon, 1984 등).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개인을 독립적인 개별적 실체로 파악하여 독립적/사적 자기관을 가지게 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내적 특성의 고양과 발전에 관심이 깊고, 따라서 자기의 독특한 내적 특성이 주의의 초점으로 떠오르므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이에 비해 자신을 타인과의 연계 속에서 파악하여 집단적/공적 자기관을 가지게 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조화와 통합에 관심이 깊고, 따라서 자기의 외적 측면이나 타인과 관련된 측면 및 내집단원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써, 상호의존성과 친밀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타인이나 내집단보다는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개인의 목표 추구가 내집단에 해가 되더라도 이를 집단의 목표에 선행시키며, 자기를 집단과는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의 결속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정서적으로도 거리감을 갖는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개인보다는 내집단의 통합과 조화이다. 따라서 개인 목표보다 내집단의 목표를 선행시키며, 내집단을 자기의 확장으로 받아들여 내집단의 결속과 내집단원들의 복지에 관심이 깊고, 내집단에 대해 강한 정서적 애착을 가진다(조공호, 1993,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Triandis, 1989, 1990, 1995;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문화 유형에 따른 이러한 주의 및 관심의 차이는 곧바로 문화 유형에 따른 공감(empathy)수준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Matsumoto, 2000, p. 379)이다. 이러한 공감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통합과 조화의 유지에 기여한다(Batson & Coke, 1981; Johnson, 1990; Krebs, 1975; Redmond, 1989).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내집단의 결속과 통합

및 내집단원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깊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보다 내집단원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선기 필자는 Triandis(1989, 1994, 1995;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Triandis et al., 1985, 1988)를 따라, 문화 수준에서의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이 한 개인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개인 수준에서의 집단중심성(allocentrism)-개인중심성(idiocentrism)을 측정하여, 집단중심성이 높고 개인중심성이 낮은 사람을 집단중심성향자, 개인중심성이 높고 집단중심성이 낮은 사람을 개인중심성향자로 분류하고, 이 두 집단의 개인 편향(조공호·김소연, 1998), 동조 행동(조공호·김은진, 2001), 자의식의 유형(조공호·명정완, 2001),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조공호, 2001),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조공호, 2002)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검증해 본 모든 행동에서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 수준에서 예측되는 것과 동일한 차이를 얻어 내었다. 이는 문화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문화 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한 문화 내의 개인차의 분석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Kagitcibasi, 1997; Smith, 1995; Triandis, 1994, 1995; Triandis, McCusker, Betancourt, Iwao, Leung, Salazar, Setiadi, Sinha, Touzard, & Zaleski, 1993)을 알려 주는 결과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우리 문화 내에서의 두 문화성향자의 비교를 통해, 집단주의 사회의 성원들이 개인주의 사회의 성원들보다 공감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려 하였다. 그런데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중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척도가 아직 없는 실정이므로(박성희, 1994),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세 척도(연구 1 :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 연구 2 : 대인관계 반응 지수 척도; 연구 3 : 정서적 공감 척도)를 통해 공감 수준을 측정하여, 이 각각의 공감 수준의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를 반복·분석해 보려 하였다. 아울러 문화성향 및 공감 수준과 관련 있으리라 여겨지는 몇 가지 변인(연구 1과 연구 2 : 공적-사적 자의식 수준; 연구 3 : 의존성-자율성 신념 수준·고독 수준)을 함께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므로써, 변인 측정의 개념 및 공존 타당도를 확보하려 하였다.

연구 1

방법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는 주의의 초점을 자기에 두는 성향, 즉 일관되고 지속적인 자기 자각의 기질적 경향성을 자의식이라 부르고, 이러한 성향의 개인차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Self-Consciousness Scale; SCS)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자의식 척도의 요인 분석을 통하여 두 가지 안정적인 자의식의 차원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 특성·사고·감정·가치 및 동기 등 자기의 내적 측면들에 주목하는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에 대한 인식, 즉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의 외적 측면들에 주목하는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다.¹⁾

문화 유형에 따른 주의의 초점의 차이에 관한 전술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Fenigstein 등(1975)의 사적 자의식 수준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보다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더 높고, 공적 자의식 수준은 그 반대가 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조금호와 명정완(2001)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연구 1)과 대학생(연구 2)을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로 나누고 SCS척도를 실시하였을 때, 공적 자의식 수준은 이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지만, 사적 자의식 수준은 전자가 후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밝혀,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해 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재검해 보고, 아울러 자의식 유형과 본 연구에서 측정하게 될 기본적인 두 측정치(문화성향과 공감 수준)의 관계의 분석을 통해, 이 두 변인—문화성향과 공감 수준—의 자의식 유형을 기준으로 한 공존 타당도의 근거를 얻어 보려 하였다.

1) 이 척도에서는 이에 덧붙여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 요인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공적 자의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대인 관계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불안해 하거나 타인의 출현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경향이다. 이는 공적 자의식을 선행 요인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나 공적 자의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적 자의식 수준이 높으면서도 사회적 불안이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Fenigstein et al., 1975). 본고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공적 자의식의 병리적 표출의 일종이라고 보아(Nasby, 1985, 1989) 제외하고,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가자

서울 소재 6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95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중복 응답한 경우 등 부적절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54명을 제외하고, 총 541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남학생이 207명(38.3%), 여학생이 334명(61.7%)이었다.²⁾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 2쪽의 자의식 척도, 2쪽의 공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성별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 연구 전체 소개문(평소 생활 태도와 정서 경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한 다음, 개인의 응답은 전체적인 통계 처리 자료로만 사용될 뿐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는 8줄 짜리 글)을 제일 첫 장에 넣어, 모두 4장(척도들은 6쪽으로 3장)으로 소책자를 구성하였다.

문화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개인중심성-집단중심성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등(1995)이 제작한 INDCOL척도를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vertical/horizontal)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수직적 유형은 불평등을 수용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반면, 수평적 유형은 평등과 동등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직적 개인주의자(VI)는 경쟁적이며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고, 수평적 개인주의자(HI)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수직적 집단주의자(VC)는 집단과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하고, 수평적 집단주의자(HC)는 평등한 동료들 사이의 동료애와 협동을 중시한다(Triandis, 1995; Triandis & Gelfand, 1998).

2) 이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는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 변인과 다른 변인의 상호작용도 없었다. 따라서 모든 분석은 남·녀 학생의 자료를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 2와 연구 3도 마찬가지였다.

Singelis 등(1995)의 척도는 이 네 하위 유형을 측정하는 Likert형 9점 척도(1: 전적으로 반대, 5: 중간, 9: 전적으로 찬성)의 태도 문항 8개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범(1996) 및 Kim과 Kim(1997)은 우리나라 대학생 326명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Singelis 등(1995)의 것과 거의 유사한 요인 구조를 얻어 내었으며,³⁾ Cronbach α 로 측정된 신뢰도는 VI = .71, HI = .81, VC = .68, HC = .7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조금호·김은진, 2001; 조금호·명정완, 2001)에서도 이 와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얻었다.

자의식 척도

연구 참가자들의 자의식은 Fenigstein 등(1975)이 개발하고, 이주일(1988)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자의식 척도(SC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사적 자의식(PRS), 공적 자의식(PUS), 사회적 불안(SOA)을 재는 각각 10, 7,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형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렇다)의 태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일(1988)이 대학생에게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신뢰도는 척도 전체가 .80, PRS = .75, PUS = .80이었고, 조금호와 명정완(2001)이 624명의 고등학생에게서 얻은 Cronbach α 는 척도 전체가 .77, PRS = .73, PUS = .70으로 대학생에게서 얻은 것과 대체로 비슷하였다.

공감 척도

본 연구에서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Carkhuff(1969)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기초로 김정수(1997)가 표준화한 공감 척도이었다. 이 척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자녀의 얘기에 대해 예상되는 부모의 반응 4문항,

부모의 말솜에 대해 예상되는 자녀의 반응 4문항 등 총 8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말솜에 대해 예상되는 자녀 반응 4문항만 사용하였다. 대화의 소재는 용돈 문제와 성적 등 한국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내용들이다. 반응의 예들은 1수준에서 5수준으로 되어 있으며, 1수준은 낮은 공감 반응을, 5수준은 높은 공감 반응을 의미한다. 학교 공부에 대한 부모의 말솜과 이에 대해 선택할 학생의 반응의 예는 다음과 같다.

너는 학생이 공부할 생각은 않고 왜 맨날 쏘다닐 궁리만 하는거냐?

- (1) 내가 어딜 다니던 참견 좀 그만 하세요
- (2) 공부를 안 하기는 왜 안 해요?
- (3) 이번에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요.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 (4) 제가 딴 일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거죠?
- (5) 공부를 좀 소홀히 해서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시는군요. 공부에 좀 더 신경을 써 볼게요

절 차

선정된 학교의 해당 학급 담임 교사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소개와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린 다음, 각 학교에서 담임 교사의 지도 아래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집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결 과

문화성향 집단 선별

각 응답자별 전체 개인중심성향(TIND)과 집단중심성향(TCOL)의 점수를 바탕으로,⁴⁾ 모든 피험자의 개인중심성향 분포와 집단중심성향 분포를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고·저 집단으로 나누고, 이 중 “개인중심성향 고 - 집단중심성향 저”인 집단을 개인중심성향의 집단으로, “개인중심성향 저—집단중심성향 고”인 집단

3)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이 척도 표준화의 연구는 Triandis와 Gelfand(1998)의 연구 1을 구성하여, 수직/수평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과 그 측정 방법의 문화 보편적인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4) 선행 연구들(조금호, 2001, 2002; 조금호·김소연, 1998; 조금호·김은진, 2001; 조금호·명정완, 2001)과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개인중심 및 집단중심성향을 기준으로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를 분류하는 자료만이 필요하므로, 수직-수평 차원의 자료를 종합한 전체 분포만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을 집단중심성향의 집단으로 선별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각 성향별 응답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중 집단중심성향자는 121명(22.3%), 개인중심성향자는 118명(21.8%)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관 분석의 경우에는 전체 541명의 자료를, 그리고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 분석의 경우에는 이들 239명의 자료를 주축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1. 성향별 응답자 분포(명)

		개인중심성향(TIND)	
		저	고
집단중심성향 (TCOL)	저	148	118 (개인중심성향자)
	고	121 (집단중심성향자)	154

문화성향과 자의식

상관 분석

전체 응답자($n = 541$) 각각의 개인중심성향, 집단중심성향,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의 점수를 계산하고, 이들 간의 상관을 계산한 결과, 사적 자의식은 집단중심성향($r = .06, p > .05$)보다는 개인중심성향($r = .33, p < .001$)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t(538) = 4.79, p < .001$, 공적 자의식도 집단중심성향($r = .16, p < .001$)보다는 개인중심성향($r = .29, p < .001$)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t = 2.30, p < .05$. 즉, 개인중심성향은 사적 자의식이나 공적 자의식과 모두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t < 1$, 집단중심성향은 사적 자의식보다는 공적 자의식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t = 2.26, p < .05$.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

문화성향에 따른 두 자의식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문화성향 집단별 두 자의식 유형 각각의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결과를 문화성향(2) × 자의식 유형(2)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 측정된 변량분석을 해보면, 문화성향과 자의식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대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F(1, 237) = 3.46, p < .07$. 이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공적 자의식 수준은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차이가 없지만, $t = 1.06, p > .05$, 사적 자의식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높음, $t = 3.41, p < .001$ 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2. 문화성향 집단 별 두 자의식 수준의 평균치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개인중심성향자 ($n=118$)	집단중심성향자 ($n=121$)
사적 자의식	3.87(.58)	3.63(.50)
공적 자의식	4.02(.66)	3.93(.60)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조금호·명정완, 2001)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추론이 대체로 사적 자의식의 경우에 타당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화성향과 공감 수준

상관 분석

전체 응답자의 개인중심성향치와 공감 수준사이의 상관은 거의 없으나, $r = .02, p > .05$, 집단중심성향치와 공감 수준 사이의 상관은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r = .13, p < .001$, 이 두 상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t(538) = 1.86, p < .05$.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

집단중심성향 집단의 공감 수준(2.75)이 개인중심성향 집단의 공감 수준(2.52)보다 높은 것으로 검출되었다, $t(237) = 2.28, p < .05$.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추론한 대로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집단중심성향자가 더 타인에게 공감을 잘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화성향, 자의식 유형과 공감 수준의 관계

이 연구에서 측정된 세 변인 중 문화성향과 자의식 수준은 개인 내의 성향 변인이고, 공감 수준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 수준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문화성향과 자의식 유형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는 다

음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공감 수준은 집단중심성향과 공적 자의식 수준 및 사적 자의식 수준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언될 수 있다. 이때 사적 자의식 수준은 공감 수준과 역방향의 예언력을 가지지만, 공적 자의식 수준 및 집단중심성향은 정방향의 예언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져, 대체로 본 연구의 추론을 지지해 주고 있다.

표 3. 문화성향·자의식 유형이 공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중다회귀분석(β)

개인중심성향	.02
집단중심성향	.13**
사적 자의식	-.15**
공적 자의식	.13**
R^2	.04**

** $p < .01$

또한 이 표에서 보면, 공감 수준에 미치는 문화 성향과 자의식 수준의 설명력이 4%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는 이 연구에서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부모-자녀 간의 의사 소통 양식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이 척도의 반응에는 공감 수준만이 아니라 동의·부동의 혹은 복종·반발 등의 요인이 개재되고 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배제된 순수한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종속 측정치로 하는 연구에서 같은 결과가 재검되어야 문화성향과 공감 수준의 관계에 대해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사적 자의식 수준은 낮고, 공감 수준은 높음이 밝혀졌다. 이는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자기의 내적 특성에 민감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집단원과의 공감 수준은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본 연구의 추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조금호·명정완, 2001)와 마찬가지로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공적 자의식 수준에

서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SCS의 공적 자의식 척도도 역시 자의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집단중심성향자는 주위의 초점이 자기보다는 타인이나 내집단이 될 것이라는 추론을 검증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다. 앞의 표 2의 변량분석에서 개인중심성향자의 전체 자의식 수준(3.95)은 집단중심성향자의 그것(3.78)보다 높으며, $F(1, 237) = 6.41, p < .05$, 전체적으로 공적 자의식 수준(3.97)이 사적 자의식 수준(3.75)보다 높다, $F = 28.72, p < .001$.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가능성의 개연성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후속 연구에서 거듭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연구 2

연구 1에서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보다 공감 수준이 높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공감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보다는 집단중심성향과 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출되어, 본 논문의 기본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 1에서 사용한 공감 척도는 부모-자녀 사이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기초로 한 것으로, 실제로는 공감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한 학생이면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척도는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한 가능한 5 개의 선택지 중에서 자기의 일상적인 반응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응답자의 공감 수준 이외에 각 반응에 대한 동의·부동의 혹은 복종·반발에 따른 응답 등 이러한 설문지가 가지는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문화성향 집단에 따른 공감 수준의 차이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의 반응을 중심으로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Davis(1980)의 척도로 대체하여 공감 수준을 측정하고, 문화성향 및 자의식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 척도는 공감 수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인지적으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해 보는 인지적 공감

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 온정과 자비를 느끼거나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정서적 공감이다. 이 중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고려하는 인지적 공감 수준에는 인지 능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같은 연령 수준이라면 인지적 능력은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Greenfield, 2000; Miller, 1984; Nisbett, in press),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인지적 공감 수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정서적 공감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상을 확인해 보려 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10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699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 중 응답이 누락된 경우 등 부적절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70명을 제외한 총 629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남학생은 275명(43.7%), 여학생은 354명(56.3%)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도 2쪽의 문화성향 척도, 2쪽의 자의식 척도, 2쪽의 공감 척도가 사용되었다. 문화성향 척도와 자의식 척도는 연구 1의 것과 같았고, 공감 척도만 달랐다. 소책자의 구성도 연구 1과 같이 하였다.

공감 척도

연구 2에서 공감 척도로는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그는 공감을 다차원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별 하위 척도를 제작하였다. 관점 취하기 척도(Perspective-Taking Scale)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려는 능력이나 경향성(예: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한다)을, 상상 척도

(Fantasy Scale)는 자신이 영화·소설·연극 등 가상적인 상황 속의 인물이 되어보는 상상력(예: 소설을 읽을 때 주인공의 느낌에 정말로 깊이 빠져든다)을, 공감적 관심 척도(Empathic Concern Scale)는 관찰 대상에 대해 온정·자비·관심 등의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예: 누군가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에 대해 일종의 보호심을 느낀다)를, 개인적 고통 척도(Personal Distress Scale)는 타인의 고통스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공포·불편함 등의 정도(예: 누군가가 부상당하는 것을 볼 때, 차분하게 있을 수 없다)를 측정한다. 이 하위 척도들 중 관점취하기 척도와 상상 척도는 인지적 공감을, 공감적 관심 척도와 개인적 고통 척도는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위 척도별 문항 수는 7개씩 총 28개인데, 연구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0점(나를 잘 나타내지 못한다)에서 4점(나를 잘 나타낸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70 ~ .78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고, 60 일에서 75 일의 간격을 두고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 = .62 \sim .81$ 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가자들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Davis(1980)와 거의 유사한 요인 구조를 얻어 내었으며, 하위 척도들의 Cronbach α 는 .62 ~ .70, 전체 척도는 .72이었다.

절 차

연구 1과 같았다.

결 과

문화성향 집단 선별

각 응답자별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을 기초로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개인중심성향 고-집단중심성향 저”인 개인중심성향자 124명(19.7%)과 “개인중심성향 저-집단중심성향 고”인 집단중심성향자 129명(20.5%)을 선별하였다. 연구 2에서도 상관 분석은 전체 연구참가자 629명의 자료를, 그리고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이렇게 선별된 253명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문화성향과 자의식

상관분석

전체 응답자($n = 629$)가 보인 사적 자의식과 개인중심성향의 상관($r = .42, p < .001$)은 집단중심성향과의 상관($r = .18, p < .001$)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t(626) = 5.23, p < .001$, 공적 자의식과 개인중심성향과의 상관($r = .29, p < .001$)은 집단중심성향과의 상관($r = .21, p < .001$)과 별 차이가 없었다, $t = 1.61, p > .05$. 즉, 개인중심성향은 공적 자의식보다는 사적 자의식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t = 4.01, p < .001$, 집단중심성향이 보인 두 자의식 유형과의 상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t < 1.1$.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

문화성향 집단 별 두 자의식 수준의 평균치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문화성향 집단 별 두 자의식 수준의 평균치 II(괄호 안은 표준편차)

	개인중심성향자 ($n=124$)	집단중심성향자 ($n=129$)
사적 자의식	3.78(.55)	3.57(.51)
공적 자의식	3.98(.57)	3.94(.63)

이 결과를 문화성향(2) \times 자의식유형(2)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 측정된 변량분석을 해 보면,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성향 집단의 주 효과($F(1, 251) = 4.12, p < .05$), 자의식 유형의 주 효과($F(1, 251) = 63.11, p < .001$)와 함께,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출되고 있다, $F(1, 251) = 5.15, p < .05$. 즉,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개인중심성향자의 전반적 자의식 수준(3.88)이 집단중심성향자의 그것(3.76)보다 높으며, 전반적으로 공적 자의식 수준(3.96)이 사적 자의식 수준(3.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인데, 이는 표 4에서 보듯이, 공적 자의식 수준은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t < 1$, 사적 자의식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249) = 3.14, p < .01$.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조궁호·명정완, 2001) 및 연구 1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추론이 대체로 사적 자의식의 경우에 타당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연구 1의 논의에서 지적되었듯이, Fenigstein 등(1975)의 자의식 척도가 문화성향에 따른 주의 초점의 차이를 밝히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성향과 공감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공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 지수는 관점 취하기 척도, 상상 척도, 공감적 관심 척도, 개인적 고통 척도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인지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는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정서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반응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및 이 두 공감 수준의 평균치인 전체 공감 수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인지적 공감 수준에서는 두 문화성향 집단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정서적 공감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높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

상관분석

전체 응답자의 문화성향 평정치와 공감 수준 사이의 상관 및 그 차이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문화성향과 공감 수준의 상관 및 그 차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공감 전체
개인중심성향	.17**	-.11**	.04
집단중심성향	.28***	.20***	.30***
차이(t)	2.45*	6.51***	5.57***

* $p < .05$, ** $p < .01$, *** $p < .001$

이 표에서 보듯이, 공감 수준은 모든 경우에 개인중심성향집단보다는 집단중심성향과 더 큰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정서적 공감의 경우와 공감 전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 표에서 눈길을 끄는 결과는 개인중심성향은 인지적 공감 수준과는 정적 상관이 있으나, 정서적 공감 수준과는 역상관을 보여, 두 공감 종류와의 상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t(626) = 6.10, p < .001$. 이에 비해 집단중심성향은 인지적 공감이나 정서적 공감과 모두 비슷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t = 1.83, p > .05$.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

두 문화성향 집단이 보인 두 종류의 공감 수준의 평균치는 그림 1과 같다.

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다, $t(251) = 4.22, p < .001$.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전반적으로 집단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이 개인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보다 높는데, 그 까닭은 전적으로 정서적 차원에서의 공감 수준의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지, 인지적 차원에서의 공감 수준은 문화성향 집단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의 잠정적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문화성향 · 자의식 유형과 공감 수준의 관계

연구 2에서도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감 수준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문화성향과 자의식 유형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여기에서는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및 공감 전체 별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6. 공감종류에 따라 문화성향 · 자의식 유형이 공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중다회귀분석(β)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공감 전체
개인중심성향	.08 [†]	-.18***	-.06
집단중심성향	.25***	.24***	.30***
사적 자의식	.07	.04	.07
공적 자의식	-.06	.05	-.01
R^2	.10***	.07***	.10***

[†] $p < .07$, *** $p < .001$

그림 1. 공감 종류에 따른 문화성향 집단 별 공감 수준

이러한 결과를 문화성향 집단(2) × 공감 종류(2)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 측정된 변량분석으로 검증해 보면, 문화성향 집단의 주 효과($F(1, 251) = 10.91, p < .001$), 공감 종류의 주 효과($F(1, 251) = 6.92, p < .01$), 문화성향 × 공감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F = 5.74, p < .05$)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집단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2.62)이 개인중심성향자(2.46)보다 높으며, 인지적 공감 수준(2.60)이 정서적 공감 수준(2.49)보다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이 두 변인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인지적 공감 수준은 두 문화성향 집단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t = 1.03, p > .05$, 정서적 공감 수준은 집단

이 표에서 보듯이, 모든 공감 수준은 주로 집단중심성향에 의해 유의미하게 예언될 수 있으며, 이 이외에 인지적 공감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될 수 있으나, 정서적 공감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방향을 예측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논 의

연구 2의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의 종류에 따라 문화성향 집단 간에 공감 수준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거나(관점취

하기 척도) 가상적인 상황 속의 인물로 상상해 보는(상상 척도) 인지적 차원에서의 공감의 경우에는, 개인중심성향자와 집단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온정을 느끼거나(공감적 관심 척도) 상대방 고통을 함께 체험하는(개인적 고통 척도) 정서적 차원의 공감의 경우에는,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공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문화성향 집단 사이의 주의의 초점의 차이(개인중심성향자 = 자기; 집단중심성향자 = 타인)는 곧바로 정서적 차원에서의 공감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관심과 배려 및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적·부적 감정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느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므로써, 정서적 공감 능력이 발달되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자기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비교적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적게 되고,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였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거나 상상 속의 인물의 처지를 그려보는 것은 인지적 능력의 문제일 뿐 문화성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연구 2의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연구 1에서와는 달리 두 자의식 수준은 공감 수준에 대해 아무런 예측력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표 3과 표 6 참조). 즉, 연구 1에서는 자의식 수준이 공감 수준에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연구 2에서는 전혀 아무런 예언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므로써,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얻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 기본적으로 문화성향에 따른 주의 초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자의식 척도가 이 두 문화성향자들의 주의 초점의 차이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두 연구 모두에서 사적 자의식 수준은 문화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적 자의식 수준은 문화성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과(표 2와 표 4 참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점도 후속 연구들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연구 3

앞의 두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주의 초점의 차이를 자의식 유형의 차이를 통해 살펴 보므로써, 본 논문에서 측정하는 문화성향의 개념적 타당도를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두 문화성향 집단은 사적 자의식 수준에서는 예측한 대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공적 자의식 수준에서는 예측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자의식 척도의 문화성향 척도에 대한 개념 및 공존타당도의 기준으로서의 가치에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3에서는 두 문화성향 집단의 차이를 직접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 또는 신념(개인중심성향자 = 자율성 추구; 집단중심성향자 = 상호의존성 추구)을 측정하여 대비해 보므로써, 위에서와 같은 목표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연구 3에서는 문화성향 및 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고독(loneliness)을 함께 측정하여, 이 삼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므로써,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인들의 개념 및 공존타당도를 광범위하게 확보하려 하였다. 고독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 대해 느끼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주관적 반응이다(구본용, 1991; Peplau & Perlman, 1982; Russell, Peplau, & Cutrona, 1980). 따라서 고독의 가장 강력한 중재 변인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이다(Verma, 1992).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내집단원과의 상호의존적이고 조화로운 친밀 관계가 추구되는 집단주의 사회일수록 사회적 지지의 질과 그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비해 내집단원과의 분리와 자율성이 추구되는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지므로, 집단주의 사회보다는 개인주의 사회의 성원들이 경험하는 고독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은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인 것이다(Kagitcibasi, 1997; Triandis et al., 1985, 1988).

또한 연구 2에서 문화 성향에 따른 공감 수준의 차이는 정서적 차원의 공감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연구 3에서는 정서적 차원의 공감만을 측정

하는 척도를 선정하여 공감 척도로 사용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과 그 주변 신도시에 소재하는 8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8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설문지에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중복 응답한 학생 30명을 제외한 총 549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남학생이 269명(49.0%), 여학생이 280명(51.0%)이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2쪽의 문화성향 척도, 2쪽의 의존성-자율성 척도, 2쪽의 고독 척도, 3쪽의 공감 척도로 소책자를 구성하여 측정 도구로 하였다. 이 중 문화성향 척도는 연구 1 및 2와 같았으며, 소책자의 구성 방식도 마찬가지였다.

의존성-자율성 척도

권석만(199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K-DAS)한 Weissman과 Beck(1978)의 역기능적 태도 척도-A형(DAS-A)을 기초로, 김현(1996)이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해 낸 의존성과 자율성 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존성 척도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불행해진다"와 같이 사회적 의존성과 애정 욕구에 대한 신념들을 반영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율성 척도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이다" 및 "절반의 실패는 전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와 같이 자립성이나 성취지향성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 : 매우 반대한다", "4 : 중간", "7 : 매우 찬성한다"의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의존성과 자율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김현(1996)의 연구에서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의존성과 자율성이 각각 .79, .81이었으며, 본 연구참가자로부터 얻은 α 는 각각 .75, .86이었다.

고독 척도

김교현·김지환(1989)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Russel 등(1980)의 UCLA 고독 척도(UCLA Loneliness Scale)

를 응답자들의 고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Russel 등(1980)은 고독을 타인들과 바라는 수준의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할 때 경험되는 불유쾌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반응 편파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의 만족을 나타내는 10문항(예 :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과 불만족을 나타내는 10문항(예 : 나는 함께 해 줄 친구가 없다), 총 20문항으로 고독 척도를 만들었다. 이 척도는 이들 문항에 대해 "1 :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3 : 반반이다", "5 : 항상 그렇게 느낀다"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족을 나타내는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김교현·김지환(1989)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비교적 높았는데, 본 연구참가자들에게서 얻은 α 는 .91이었다.

공감 척도

정서적 차원의 공감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감을 대리적 정서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개발한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적 공감 척도(Emotional Empathy Scale)에 대한 박성희(1994)의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 감염에 대한 민감성(예 :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낯선 타인에 대한 느낌의 인식(예 : 외로운 사람들은 아마도 다정하지 못할 것이다*),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성(예 : 때때로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에 깊이 감동한 적이 있다), 타인의 정적 정서 경험에 동감을 느끼는 경향성(예 : 사람들이 선물꾸러미를 뜯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타인의 부정적 정서에 동감을 느끼는 경향성(예 :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 나도 기분이 상한다), 동정적인 경향성(예 : 어떤 것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곤경에 처한 타인과 접촉하려는 의지(예 : 직업훈련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회사업가가 되겠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에 대해 "1 : 전적으로 아니다", "5 : 중간", "9 : 전적으로 그렇다"의 9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시한 문항 중 *표시한 것과 같이 부적인 방향의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클수록 공감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연구에

서의 반분신뢰도(r)는 .84이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들로 부터 얻은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76이었다.

절 차

연구 1 및 2와 같았다.

결 과

문화성향 집단 선별

각 응답자 별 개인중심성향과 집단중심성향을 기초로 중앙치 분리법에 따라 선별된 개인중심성향자는 94명 (17.1%), 집단중심성향자는 103명(18.7%)이었다. 여기 에서도 상관 분석은 전체 연구참가자 549명의 자료를, 그리고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 분석은 이렇게 선별된 197명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문화성향과 의존성-자율성 신념

상관 분석

전체 응답자($n = 549$)의 자율성은 집단중심성향($r = -.16, p < .001$)보다는 개인중심성향($r = .10, p < .05$)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t(547) = 5.23, p < .001$. 반대로 의존성은 개인중심성향($r = .11, p < .01$)보다는 집단중심성향($r = .33, p < .001$)과 훨씬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t = -4.89, p < .001$.

문화성향 집단 간 차이

문화성향 집단 별 의존성과 자율성의 평균치는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의존성 신념은 집단중심성향자가 개인중심성향자보다 높고, $t(195) = 1.98, p < .05$, 자율성 신념은 개인중심성향자가 집단중심성향자보다 높다, $t = -4.49, p < .001$. 이러한 사실은 문화성향(2) \times 신념 종류(2)에서 뒤의 요인이 반복 측정된 변량분석 결과,⁵⁾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F(1, 195) = 14.50, p < .001$.

이러한 결과는 의존성·자율성 신념과 두 문화성향이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대로의 관계를 보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화성향 척도가 개념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문화성향과 공감 수준

상관 분석

전체 응답자의 개인중심성향과 공감 수준 사이의 상관은 거의 없으나, $r = .03, p > .05$, 집단중심성향과 공감 수준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이 검출되어, $r = .40, p < .001$, 공감 수준과 두 문화성향의 상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검출되고 있다, $t(547) = 7.96, p < .001$.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

집단중심성향자($n = 103$)의 공감 수준은 6.41로 개인중심성향자($n = 94$)의 공감 수준 5.76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출되었다, $t(195) = 6.49, p < .001$. 이러한 결과는 두 문화성향 집단의 공감 수준의 차이에 관한 본 논문의 기본 가설을 거듭 지지해 주는 것이다.

문화성향과 고독

상관 분석

전체 응답자의 고독 수준은 개인중심성향($r = -.12, p < .01$)이나 집단중심성향($r = -.41, p < .001$)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나, 후자와의 부적 상관이 훨씬 컸다, $t(547) = 6.24, p < .001$. 이는 집단중심성향

그림 2. 문화성향 집단별 의존성·자율성 신념 수준

5) 이 변량 분석에서는 신념 종류의 주 효과도 검출되고 있는데, $F(1, 195) = 39.41, p < .001$, 이는 전체적으로 의존성 신념(4.34)이 자율성 신념(3.85)보다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 문화성향 집단의 주 효과는 없었는데, $F < 1$, 이는 두 문화성향 집단에서 민감한 신념이 서로 달라서, 이 두 문화성향 집단 내에서 이 두 신념이 종합되면, 그 효과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이 높아질수록 고독 수준이 크게 낮아짐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문화성향 집단 간의 차이

개인중심성향자의 고독 수준(2.38)은 집단중심성향자의 고독 수준(1.92)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t(195) = 5.21, p < .001$. 이는 이론적으로 예측하던 대로의 결과이다.

문화성향 · 신념유형 · 고독과 공감의 관계

이 연구에서 측정한 고독 수준은 공감 수준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23, p < .001$)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서 밝혀진 대로 이 두 요인은 문화성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고독 수준과 공감 수준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각각 문화성향, 신념종류 및 공감(고독이 기준변인일 때) 또는 고독(공감이 기준변인일 때)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해 보면, 이 두 경우 각 예언변인은 기준변인인 고독 및 공감과 서로 반대되는 회귀계수를 보일 것이다.

표 7. 문화성향 · 신념유형 · 고독(또는 공감)이 공감(또는 고독)에 미치는 영향의 중다회귀분석(β)

	고 독	공 감
개인중심성향	-.07	-.10*
집단중심성향	-.34***	.35***
자 율 성	.17***	-.10*
의 존 성	.04	.16***
고 독	-	-.11**
공 감	-.11**	-
R^2	.21***	.23***

* $p < .05$, ** $p < .01$, *** $p < .001$

이 표에서 보면, 고독에 대해 예측력을 갖는 변인과 공감에 대해 예측력을 갖는 변인은 반대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중심성향과 자율성은 이 두 기준변인과 반대 방향의 예측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 표에서 보면, 특히 공감을 기준변인으로 했을

때 집단중심성향 · 의존성은 정적인 예언력을 가지는 반면, 개인중심성향 · 자율성 · 고독 수준은 부적인 예언력을 가져, 이론적으로 추론되는 대로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논 의

연구 3에서는 연구 1 및 2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 측정하는 문화성향의 개념적 타당성을 의존성과 자율성의 신념 수준을 기준으로 살펴 보았는데, 연구 3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조작이 유의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연구 2의 표 6 중 정서적 공감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회귀분석한 결과와 표 7의 공감(연구 3에서 측정한 공감은 정서적 공감임)을 기준변인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문화성향은 예측한 대로 모두 반대 방향의 영향력을 미치지만, 자의식 유형은 유의미한 예측력을 가지지 못함에 비해(표 6참조), 자율성-의존성의 신념 종류는 예측한 대로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표 7 참조). 이는 공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자의식 유형과 문화성향의 관계보다는 자율성-의존성 신념 종류와 문화성향의 관계가 더 일관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율성-의존성 신념 종류와 문화성향 사이의 관련성은 고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이론적 예측과 일관되게 나타난다. 응답자들의 고독 수준과 의존성 신념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고, $r = -.09, p < .05$, 자율성 신념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검출되고 있어, $r = .46, p < .001$, 논리적인 예측과 일관되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전체 응답자들을 고독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n = 270$) · 하($n = 279$) 집단으로 나누고, 이 두 집단의 의존성과 자율성 신념의 평균치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표 8)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이 표에서 보면, 고독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의존성 신념은 낮고, $t(547) = -2.11, p < .05$, 자율성 신념은 높은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t = 3.60, p < .001$. 또한 고독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공감 수준(5.82)은 낮은 사람들의 공감 수준(6.10)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검출되고 있다, $t = 4.61, p < .001$.

이러한 결과들을 앞에서 제시된 문화성향과 고독 사

이의 관계에 대한 결과와 결부시켜 보면, 고독 수준이 높은 집단은 개인중심성향 집단의 반응과 유사하고, 고독 수준이 낮은 집단은 집단중심성향 집단의 반응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8의 결과는 고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의존성-자율성 신념 유형이 문화성향의 차이를 담보하는 개념적 준거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8. 고독 수준에 따른 두 종류 신념 평균치와 그 차이

	의존성	자율성
고독상	4.33	3.97
고독하	4.50	3.83
<i>t</i>	-2.11*	3.60***

* $p < .05$, *** $p < .001$

종합논의

본고에서는 3 개의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집단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이 개인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유형을 기초로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Carkhuff, 1969)를 사용하였고, 연구 2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타인의 상태에 대한 인지적 및 정서적 반응으로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Davis, 1980)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3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체험하는 정도를 기초로 하여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Mehrabian & Epstein, 1972)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공감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각 연구에서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한 것은 아직까지 공감 수준을 측정하는 보편 타당한 척도가 없는 실정이므로(박성희, 1994),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두 문화성향 집단의 공감 수준을 측정·비교하여 보므로써, 가설 검증의 타당성을 높여 보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모든 연구에서 집단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이 개인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서, 본 연구 기본 가설의 경험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공감의 두 유형: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대하여 그것의

감정적인 요인과 거기에 관련된 의미를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Rogers, 1975). 그러므로 이러한 공감에는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인지적 차원과 그가 느끼는 감정과 고통의 공유라는 정서적 차원이 개재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공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지적 차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박성희, 1994). 아마도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인식이 그에 대한 감정의 공유보다 선행하는 과정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감의 고유한 특성을 정서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어 힘을 얻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Feshbach (1978)를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감의 고유한 특성은 이 개념의 역사적 기원이나 적용례에 비추어 볼 때, 그 정서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p. 8)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도 검증되고 있다. 본고의 연구 2에서는 Davis(1980)의 척도를 사용하여 공감을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즉, 연구 2에서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의 관점이나 입장에서 보는 “관점 취하기”와 영화·소설·연극 등 가상의 상황 속의 인물이 되어보는 “상상력” 등 인지적 차원의 공감 수준과 상대방에 대해 온정·자비·관심 등의 느낌을 가지는 “공감적 관심”과 타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적 고통” 등 정서적 차원의 공감 수준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차원의 공감 수준은 두 문화성향 집단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에 반해, 정서적 차원의 공감 수준은 집단중심성향자들이 개인중심성향자들보다 높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인지적 차원의 공감 수준과 정서적 차원의 공감 수준이 아무런 차이 없이 아주 높았음에 비해, 개인중심성향자들은 인지적 차원의 공감 수준은 높지만, 정서적 차원의 공감 수준은 아주 낮았다. 이러한 사실은 두 문화성향 집단 간의 공감 수준의 차이는 전적으로 정서적 차원의 공감 수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지, 인지적 차원에서는 두 집단의 공감 수준 간에 차이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집단중심성향자와 개인중심성향자의 공감 수준의 차이가 정서적 차원의 공감에서만 나타난다는 사

실은 공감의 핵심이 인지적 차원보다는 정서적 차원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관점 취하기나 가상 속의 인물의 처지를 상상해 보는 일은 인지 능력과 관계된 활동으로, 구체적 조작기를 벗어나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 있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고등학교 2 학년생)의 인지 능력으로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문화성향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 이러한 인지적 측면의 공감 수준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서적 차원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고통을 함께 체험하는 것은 연구 참가자들의 인지 능력과는 무관한 능력이나 경향성일 것이다. 이는 그들의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 및 사람들과의 사이에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징일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조화를 추구하는 집단중심성향자들은 상대방의 긍정·부적 감정을 그들과 함께 느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서적 차원의 공감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자기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중심성향자들은 비록 상대방의 처지를 가상적으로 그려 볼 수는 있지만, 그에게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능력은 개발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보다는 자기의 독특성과 자율성의 추구에 더욱 관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3에서는 정서적 차원의 공감 수준과 참가자들의 고독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역상관($r = -.23, p < .001$)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독 수준은 개인중심성향자들이 집단중심성향자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므로써, 공감의 핵심이 정서적 측면에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연구 3에서 고독 수준은 대인 관계에서의 긍정·부적 경험을 기초로 측정하는 UCLA 고독 척도(Russell et al., 1980)로 측정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대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반응으로, 어찌 보면 대인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감과는 반대되는 극단에 있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감과 고독이 유의미한 역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중심성향이 강할 수록 고독 수준은 낮고, 정서적 공감 수준은 높다는 결과는 공감이 고독과는 반대 쪽 극단에 있는 정서적 체험임을

드러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연구로서의 문화성향 집단 간 비교 연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공감 수준의 문화차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화성향의 개인차를 통한 개인차 연구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한 문화권 내의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 관련 행동 또는 심리적 특징을 비교하는 문화 내적 비교 연구의 일종이다(Kagitcibasi, 1997; Smith, 1995; Triandis, 1994, 1995; Triandis et al., 1993). 이러한 연구들(조금호, 2001, 2002; 조금호·김소연, 1998; 조금호·김은진, 2001; 조금호·명정완, 2001)은 문화 간 비교 분석의 연구들이 가지기 쉬운 결함(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Fiske, Kitayama, Markus, & Nisbett, 1998; 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Triandis, 1994, 1995; Triandis et al., 1993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인차 연구로서, 이것이 문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 현상과의 실제적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자의식의 유형(연구 1·연구 2)과 의존성·자율성 신념(연구 3)을 문화 유형 관련 기준으로 잡아,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문화성향의 개념적 타당도를 검증하는 준거로 삼으려 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모두 사적 자의식 수준은 집단중심성향보다 개인중심성향과 훨씬 높은 상관을 보이고, 따라서 개인중심성향 집단(개인중심성향은 높고, 집단중심성향은 낮은 집단)의 사적 자의식 수준이 집단중심성향 집단(개인중심성향은 낮고, 집단중심성향은 높은 집단)의 사적 자의식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 유형에 따른 자기관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0, 1994, 1995)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 자의식 수준은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 즉, 이는 집단중심성향보다는 개인중심성향과 더 상관이 높거나(연구 1), 두 상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연구 2). 그리고 두 문화 성향 집단 간에도 공적 자의식 수준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연구 1·연구 2).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자의식 척도 중 공적 자의식 척도는 문화 유형 또는 문화 성향 간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연구 3에서는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핵심적 차이(Fiske et al., 1998; Kagitcibasi, 1997; 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0, 1994, 1995)인 의존성과 자율성의 신념을 측정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문화성향의 문화 비교 연구의 도구로서의 개념적 타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집단주의는 정의상 타인과의 연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문화 유형이고, 개인주의는 독립적이고 평등한 개인의 자율성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문화 유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되는 집단중심성향과 개인중심성향은 각각 의존성 및 자율성 수준과 더 밀접히 상관되어 있어야 하며, 의존성 신념은 집단중심성향 집단이 개인중심성향 집단보다 강하고, 자율성 신념은 반대로 개인중심성향 집단이 집단중심성향 집단보다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연구 3의 결과는 이러한 예측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대체로, 특히 연구 3의 결과는 완벽하게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의 문화 연구로서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그대로 문화 비교의 결과라 해석해도 될 것이다. 즉, 상대방에 대한 공감, 특히 정서적 공감의 수준은 집단주의 사회에서가 개인주의 사회에서보다 더 높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문화 간 비교 연구나 점화 효과(priming effect)의 방법을 원용한 직접적인 문화 조작 연구(Chiu, Morris, Hong, & Menon, 2001; Choi, Dalal, Kim-Prieto, & Park, 2001; Hong, Chiu, & Kung, 1997; Hong, Morris, Chiu, & Benet-Martinez, 2000 등)에 의해 재검되어야 그 경험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은 두 말할 여지도 없다.

참 고 문 헌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 구조. *심리과학*(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3, 100-111.
구본용 (1991). 고독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성.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 김교현·김지환 (1989). 한국판 UCLA 고독 척도. *학생생활연구*(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6, 13-30.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김정수 (1997). 부자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양립성 지각과 비행.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김지용 (2002). 문화성향과 자의식, 공감, 허구적 독특성 및 동조 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김지현 (2002).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고독 및 공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김현 (1994). 역기능적 신념과 생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검색 척도와 자기의식 척도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조공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간 차이: 대인평가 이원 모형의 확대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조공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조공호 (1997). 문화유형과 정서의 차이: 한국인의 정서 이해를 위한 시론. *심리과학*(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6(2), 1-43.
조공호 (1999). 문화유형에 따른 동기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33-273.
조공호 (2000). 문화유형과 동기의 차이: 한국인의 동기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83-122.
조공호 (2001). 문화성향에 따른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한국심리학회지*, 2001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pp. 265-273). 서울: 한국심리학회.
조공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91-111.
조공호·김소연 (1998). 경향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

- 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조금호 ·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 조금호 ·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홍미화 (2002).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완벽주의 성향, 자의식 및 공감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 Batson, C. D. & Coke. J. S. (1981). Empathy :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In J. P. Rushton & R. M. Sorrentino (Eds.),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Hillsdale, NJ : Erlbaum.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khuff, R. R. (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 (Vol. 1).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Chiu, C. Y., Morris, M. W., Hong, Y. Y., & Menon, T. (2000). Motivated cultural cognition : The impact of implicit cultural theories on dispositional attribution varies as a function of need for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47-259.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1). *Culture and judgment of causal relevance : Inclusion versus exclusion*. Unpublished manuscrip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F.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eshbach, N. D. (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 in children. In B. 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8). New York : Academic Press.
- Fiske, A. P., Kitayama, S., Markus, H. R., & Nisbett, R. E. (1998). The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In D. T. Gil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Vol. 2, pp. 915-981). Boston, MA : McGraw-Hill.
- Greenfield, P. M. (2000). Three approaches to the psychology of culture : Where do they come from? Where can they go?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23-240.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J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 129-178). Hillsdale, NJ : Erlbaum.
- Hong, Y. Y., Chiu, C. Y., & Kung, T. M. (1997). Bringing culture out in front : Effects of cultural meaning system activation on social cognition.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 135-146). Singapore : Wiley.
- Hong, Y. Y., Morris, M. W., Chiu, C. Y., & Benet-Martínez, V. (2000). Multicultural minds : A dynamic constructivist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 Johnson, D. W. (1990). *Reaching out : Interpersonal effectiveness and self-actualiz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Kagitcibasi, C. (1997).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3, pp. 1-49). Boston, MA : Allyn & Bacon.
-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1, pp. 247-259). Singapore : Wiley.
- Krebs, D. L.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Kunda, Z. (2000). *Social cognition : Making sense of people*. Cambridge, MA : MIT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68-579.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Belmont, CA : Wadsworth/Thomson Learning.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ment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Nasby, W. (1985). Private self-consciousness, articulation of the self-schema, and recognition memor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704-709.
- Nasby, W. (1989). Privat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articulation of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17-123.
- Nisbett, R. E. (in press). *The geography of thought : The circle and the line*. Thousand Oaks, CA : Sage.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 Holistic v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pp. 1-18). New York : Wiley & Sons.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 (decent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42, 593-605.
- Rogers, C. R. (1975). Empathy :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 2-10.
- Russel, D., Peplau, L. A., & Curt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mith, P. (1995).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 Looking to the fu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588-590.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pp. 41-133). Lincoln, NB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 McGraw-Hill.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 Clark, F. L. (1985). Allocentric vs. idiocentric tendencie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McCusker, C., Betancourt, H., Iwao, S.,

- Leung, K., Salazar, J. M., Setiadi, B., Sinha, J. B., Touzard, H., & Zalaski, Z. (1993). An etic-emic analysi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 366-383.
- Verma, J. (1992). Allocentrism and relational orientation. In S. Iwawaki, Y. Kashima, & K. Leung (Eds.), *Innov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52-163). Amsterdam/Lisse, The Netherlands : Swets & Zeitlinger.
- Weissman, A. N., & Beck, A. T.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Toronto, Canada.
- Weldon, E. (1984). Deindividuation, interpersonal affect and productivity in laboratory task grou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4, 469-485.

Cultural Dispositions and the Level of Empathy

Geung-Ho Cho, Ji-Yong Kim, Mee-Hwa Hong and Ji-Hyun Kim

Sogang University

In this study, thre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hypothesis that the level of empathy of the allocentrics is higher than that of idiocentrics.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llocentrics and idiocentrics) and responded on the three kinds of empathy-tests (Experiments 1 to 3). As anticipated, allocentrics showed higher level of empathy than idiocentrics on all of the tes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mpathy is the characteristic emotional experience and response of the collectivistic societies because interpersonal dependence and concern are emphasized in these societies, but in individual societies the level of empathy is low because they emphasize autonomy and independence rather than the interpersonal dependence and concern.

Keywords: cultural disposition, self-consciousness, empathy(cognitive empathy · emotional empathy), interdependency-autonomy belief, loneliness.

원고접수 : 2002년 10월 1일

심사통과 : 2002년 11월 7일